

전주시 드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본다

국제박람회 5~7일 개최
국내외 80여개 업체 참가
드론 시연·축구 등 행사 구성



5일부터 7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에서 '2019 드론산업 박람회'가 열린다. 드론 축구 대회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드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본다.” 전주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일부터 7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에서 '2019 드론산업 박람회'가 열린다.

드론산업의 저변확대와 신기술 발굴, 산업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박람회에는 드론 관련 기자재를 생산하는 국내외 80여개 업체가 참가한다.

이번 행사는 ▲드론 시연 ▲국제 컨퍼런스 ▲드론 업계·기관 전시 ▲드론축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전문가와 국내외의 드론 기업, 드론 연관 업계 관련 바이어·투자자, 시민 등 약 2만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람회장에는 200여개 부스가 운영되고 드론 전시회, 첨단기술 시연 등이 펼쳐지며 해외 명사 강연, 드론 규제 샌드박스(유예 제도) 설명회 등도 곁들여진다.

아울러 드론 축구 전국대회를 포함한 드론 관련 레저스포츠 행사도 열린다.

특히 드론 체험관·산업관·기술관·융합사업관·해의기업관 등 5개 전시관에서

는 박람회 내내 드론 관련 첨단 제품들과 기술들이 소개되고 시민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행사로 준비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2016년 최첨단 탄소 소재와 드론,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해 세계 최초로 드론 축구 기술을 개발한 전주시는 지난해 대한드론축구협회를 공식 출범해 드론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박람회가 드론 시험·평가·인증시스템 구축과 드론 제조기반 확충, 전문 인력 양성 등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신설

1일자 조직개편 단행...미래전략사업단을 경제환경국 대체

정읍시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정읍시는 먼저 미래전략사업단을 경제환경국으로 대체하고, 노인장애인과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를 신설했다.

최근 급증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정읍 황토현 전승일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데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고 정읍시는 설명했다.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마이스

사업팀, 은난화와 미세먼지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팀 등도 새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읍시 조직은 총 5개 국, 2개 사업소, 36개 과, 255개 팀으로 조정됐다.

공무원 총원도 1131명에서 1162명으로 31명 늘었다.

정읍시 관계자는 “시장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현안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지난해 세계문화댄스페스티벌 러시아팀 공연 모습.

세계 청소년 댄서 500명 전주서 '춤 대결'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3일 개막...해외 13개국 18팀 참가

전 세계 청소년 춤꾼들의 경연인 제8회 세계문화댄스페스티벌이 3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7일간 펼쳐진다.

대회에는 13개국 18팀 500여명이 참가해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공연을 선보인다.

조직위는 창의성, 표현성, 협동성, 작품성, 관중 호응도 등을 심사해 9개 부문에서 상패와 상금을 준다.

참가자들은 국립전주박물관, 전주 한옥마을, 익산 보석박물관과 미륵사지 등을 돌며 특별공연도 한다.

류흥열 세계문화댄스페스티벌조직위원장은 “세계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국가 간 우호를 도모하는 국제문화교류 행사로, 지구촌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 구림면 화암마을 '숲 체험관' 개관

숲속교실·탐방로 등 조성...주민 등 200여명 참석 준공식

순창군 구림면 화암마을에 '숲 체험관'이 조성됐다.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순창 구림면 순창향 관광농원에서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해 순창군의원 및 지역 사회단체장,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암마을 종합정비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사진> 이 사업은 2015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숲 체험을 테마로 마을 소득 증대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3년간 총 6억4600만원이 투입됐다.

군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화암마을만의 지역적 특색을 살려 숲 체험을 테마로 숲 체험관과 숲속 교실, 숲 체험 탐방로를 조성했다. 또 기반 조성 외 선진지 견학

과 마을 단위 컨설팅사업으로 지역민의 역량 강화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최근 도시민의 전원생활, 여가와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관광 트렌드와도 잘 맞아떨어져 순창군을 대표하는 관광 마을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림 화암마을은 2012년 전북도 향토산업 마을 조성사업 선정에 이어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원사업 등 매년 각종 사업에 선정되면서 마을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순창=정영근 기자 jyg@

방학 중 결식아동 발생 우려 남원시, 전주조사 실시

남원시가 올해 여름방학 기간 중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주조사를 실시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결식 우려아동의 급식 지원을 위한 전주조사와 함께 기존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1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전주조사는 급식지원 대상자 신규 발굴과 끼니를 걱정하는 아동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추진된다. 급식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저소득 가구다.

시의 경우 결식 우려가 큰 18세 미만의 아동 1200여명이 해당된다. 현재 시는 1006명의 아동에게 바우처카드로 가맹점 188곳에서 물품 구입 후 결제하는 방식으로 아동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급식신청은 아동 본인과 가족, 이웃 등이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복지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 결식아동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아동들이 행복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고창군, '결혼비용 지원금'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

고창군의 '신랑신부 결혼비용 지원금'이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원하던 '신랑신부 결혼비용 지원금'을 7월부터 고창사랑상품권으로 대체 해 지급하기로 했다.

유기상 군수는 저출산극복과 지역청년 정책 공약사업으로 결혼비용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고창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군민이 결혼할 경우 세대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은 지난 4개월간 257가구가 지원받으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기준은 고창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군민이 혼인신고 후 신청일 현재 배우자와 함께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이며, 관할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신창동, 가도빌딩, 근린상가 매매/임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4층중 2층 201호 전체, 건물170평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2억
- 매매 - 8억 8천만원
- 임대 - 보1억원에 월400만원

문의. 010-6834-7400